

실용주의와 참된 교회

조송희목사(주안에교회)

서론

주제 발표를 준비하면서 진리를 가로 막거나 복음의 본질을 흐리는 시대사조 속에서 교회를 참되게 섬기는 목회자의 소명, 본분이 얼마나 도전적이며 생사의 문제가 되는가를 더 깨닫게 된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롬1:16)이라 했는데 그 결과로 탄생하는 교회가 멀리에서는 유럽이 꾸준한 세속화의 결과로 바닥을 치고 있다. 한 예로 프랑스의 경우는 무슬림 인구수가 600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한편 북미의 신학교에서는 '제1세계의 재복음화'가 강의 주제를 차지할 정도로 교회가 한 때 융성했던 곳이 이제는 위기 상황에 놓여있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1930-40년대에는 미국보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강력한 국가였으나 지금은 건물을 빌어 예배를 드리는 이민교회가 오히려 캐나다의 백인 교회에 활력을 준다고 말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기성교회에 대한 극심한 실망으로 제도권교회에 대한 소속감이 상실되어가는 가나안현상을 진단하는 책이 나올 정도이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이미 선포하셨고 지상에서 복음사역을 하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를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여도 예수님이 선포하신 승리가 뒤바뀔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 또한 감해진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어야 할 교회가 이런 저런 이유로 살아있는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교회가 신학적 자유주의에 물들고, 세속화가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오고, 개인주의와 실용주의, 물질주의에 영향을 받고 상당한 정도로 사로잡혔기 때문이겠으나 이 발표에서는 "실용주의와 참된 교회"로 그 주제를 한정하고자 한다.

본론

실용주의에 대한 정의는 박순용 목사의 말을 빌리면 19세기 후반에 일어난 미국의 사상으로 의미와 가치가 실용의 차원에서 부여된다는 주장이다. 처음에는 교육의 영역에 적용되던 것이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모든 분야에서 효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자리 잡게 된 것이 실용주의 사상이다.¹⁾ 경영학적으로 보면 투자대비회수(ROI: Return on Investment)를 강조하는 것이다. 투자를 해서 얻어낸 결과가 초기 비용(자본, 자원, 시간, 노동력)을 회수하고 이윤을 더 회수 할수록 ROI가 좋은 것인데 사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런 정신이 자리 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용성이 높으려면 근본적으로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뛰어 넘어야 한다. 시간을 단축하고 공간의 한계를 뛰어 넘어서 만족할 만한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와야 하는 것인데 이는 기술의 발전과 인간관계 방식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런 전환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생겨났다.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 넘어 실용성이 자리 잡혀 가는 변화의 역사가 사회에 끼친

1) 박순용,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부흥과 개혁사, 2009) 140p.

영향을 신학적으로 고찰한 내용을 데이빗 웰스의 신학실종에서 한 마을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다. 웰스는 웨넘이라는 전통적 마을이 상당기간 보전되면서 이미 상당한 정도로 현대화된 다른 마을과 비교하면서 전통적 가치의 상실과 새로운 형태의 도시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한다.

미국의 다른 곳에서는 이미 급격한 산업화와 민주적 방식이 자리잡힌 사회에 잘 부합하는 알미니안적 신학이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던 상황인데 웨넘은 그런 영향력을 받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었다.²⁾

웨넘은 개인의 사적인 영역과, 공공생활의 영역이 분열이 없이 통합된 사회로 한 예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주일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주중에 사업하며 만나는 사람들이었다. 가정과 세상이 분리되지 않고 동일하게 연결되는 과거 농촌과도 같은 곳이었다.³⁾

현재의 미국사회는 그것과는 확연히 달라져서 매해 20%의 미국인이 어디론가 이사를 하기 때문에 특정 지역과 연계되지 않는 경향이 늘어가는 현상을 지적한다. 이웃이 생겨날 수 없는 것인데 이는 삶에서 영구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에서 속도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히고 정주성이라는 개념이 사라진 현대생활의 템포가 생겨났다. 장소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은 것이다.⁴⁾

한국도 최근 20년 정도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스마트폰, SNS와 같은 미디어와 통신수단, 지하철, 버스, 자가용과 같은 운송수단은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이것들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축소를 가져오면서 웰스가 말한 것처럼 편재성이라는 개념이 우리 삶에 침투하게 되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매체, 교통수단의 진보로 삶의 영역이 엄청나게 넓어진 것이다. 인간이 다스려야 할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에 이를 따라 잡기 위해서 사람은 더욱 더 속도를 내야만 한다. 운송 수단과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시공간의 축소, 이것이 효율의 속성이다.

웰스는 실용주의와 효율성을 추구하는 가운데 전지성과 편재성이라는 신적 속성이 인간사회 안에 들어섰음을 밝히고 있다. 전지성과 편재성의 개입될 때 오히려 영구성에 대한 인식이 사라져 가고, 일회성과 비지속성의 일상화와 거기에 함몰되는 경향이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⁵⁾ 그 결과 인간의 삶의 지평은 매우 넓이는 확대되었지만 삶의 토양은 알팍해지게 되었다.

이전에 살던 둔촌주공아파트, 지금 사는 아파트 단지에서 이런 차이를 볼 수 있다. 지금 사는 곳에 정주성의 요소가 더 강하게 자리하고 있다. 장기전세, 국민임대가 70%를 차지하고 30%가 매매나, 일반전세이다. 또한 단지에 모범적으로 자리 잡힌 혁신초등학교, 중학교가 있어서 교육의 문제로 인해서라도 다양한 계층들이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오래 거주한다. 장기전세, 국민임대, 혁신 교육이라는 가치(효율이라는 것과는 상반된)가 들어오면서 정주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게 되었는데 이것이 분명 사람들 사이의 관계형성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준다.

웰스가 지적하는 이동수단,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치솟는 전세 값은 지속성, 정주성에 대한 심각한 타격을 가져온다. 한 TV프로그램에서 대교건설을 통해 전라남도 지역의 섬

2) 데이비드 웰스, 김재영 역, *신학실종* (부흥과 개혁사, 2006) 66p.

3) Ibid., 70p.

4) Ibid., 82p.

5) Ibid., 83p.

육지와 연결시키는 프로젝트가 가져온 역기능을 방증한 것을 본적이 있었다. 육지와 섬을 잇는 대교건설 사업이 섬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는 진술을 들었다. 다리 놓기의 목적은 섬주민이 도시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며 이동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정작 다리로 육지와 섬이 연결되고 나서 지역주민이 도시로 이탈하는 상황이 급격히 심화되었다. 이전에 섬주민의 삶은 슬로우 푸드와 같은 것이었고 그곳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관광 컨셉은 슬로우 관광이었다. 배를 타고 한 번 오면 3-4일을 머물면서 섬주민의 삶의 흐름을 타며 일상을 관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다리가 건설된 후에는 이웃집 주민이 말도 없이 자동차를 타고 이웃도 모르게 어떤 이유에서든지(쇼핑, 모임 등등) 육지로 떠나는 일상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섬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교통사고로 인한 재해가 급격히 늘었다고 한다. 교통량이 늘어났지만 섬의 도로는 크게 바뀐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자체로 유지되던 섬 안의 생태계가 바뀐 것이다. 섬주민이 차로 언제든지 육지로 갈 수 있게 되니까 공동체의 결속이 약화되면서 개인주의가 굉장히 심해졌다고 한다. 다리의 건설로 인해 특정 영역이 집값이 치솟으면서 위화감도 생겨났다고 한다. 관광객들이 이전에는 배로 작정하고 와서 천천히 관광을 했지만 오전에 와서 경치 좋은데 한 번 찍고 다른 섬으로 떠나고 쓰레기를 놓고 가서 환경오염도 심화되었다고 한다. 다리의 연결, 배에서 자동차로의 교통수단의 변화가 시공간을 줄이는 효율성을 가져오는 동시에 편재성, 이동성, 일시성을 가져왔고 이전에 있던 정주성, 지속성이 사라지게 된 것이다.

도시생활에 있어서도 건축의 영역에 효율성, 실용주의가 개입되는 것을 목격하게 된다. 과거의 한옥에서 다세대, 아파트로의 전환이 가져온 삶의 변화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다. 열린 공간에서 제한된 닫힌 공간에 다수를 수용하는 형태로 가면서 단절이 일어났다.

웰스가 지적하는 중요한 지점과 맞물려서 교량, 자동차, 정보통신의 발달이 가져온 효율성으로 인해 파편화 되어버린 개인들이 자신의 필요와 취향에 초점을 맞추는 삶의 방식이 등장하게 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에서의 결속의 끈들이 약해지고 개인의 선택이 중요해지는 소비주의 성향이 사실은 실용주의가 가져온 현대문화의 특징이 되는 것이다.

여행, 통신수단, 유통으로 인해 요상하게 확대된 환경 속에서 인간이 직면하는 경험의 수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삶의 영역은 지역을 넘어 세계적이 되었다. 동시에 인간의 경험은 폭은 넓어졌지만 피상적이고 인격적이지 않게 되었다.⁶⁾

도시와 같이 다양한 배경과 교육, 주거, 직장과 같은 여러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는 사회에서는 직장과 같은 공적영역과 가정과 같은 사적영역이 분리되는 양서류적인 특징을 지님을 웰스는 지적한다. 공적영역에서는 가치, 신념, 신앙이 아닌 개인이 행하는 일이 중요하며 공적세계에서 개인관계는 장애가 된다. 사적 관계가 최소화되어야만 하는 것이다.⁷⁾

공적영역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 효율적인 가치는 다원주의이다. 다원주의적 가치 속에서 서로에 대한 적대 의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거주민들 각자가 가지는 가치를 사적 영역으로 축소해야 한다.⁸⁾ 공존을 가능하게 하는 우호성을 유지하기 위해 공적영역에서 개인이 가치를 끊어버릴 때 삶은 기술 시대의 구조에 갇히게 된다. 남아 있는 유일한 윤리는 실용성, 즉 효율성이 된다.⁹⁾

6) *신학실증*, 94p, 115p.

7) *Ibid.*, 130p.

8) *Ibid.*, 131p.

9) *Ibid.*, 132p.

이렇게 실용성이 지배하여 효율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넓혀진 공간,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속도를 내기 위한 방책을 마련하기 위해 갖가지 불안과 걱정에 휩싸이게 된다. 이러한 경향으로 인해 공적영역에서 사적영역의 중요성은 줄어들게 되고 지역, 공동체, 가정의 결속력을 단절시키게 된다.¹⁰⁾ 웰스의 지적처럼 공적, 사적영역이 분절된 가운데 공적영역이 지배하는 영역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가정, 공동체, 교회의 위치는 점점 더 구석으로 몰리고 있다.

사회에 실용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초월적 영역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화가 가속화되었다. 세속주의는 초월적 질서에 뿌리 내리지 않은 전망과 가치인데, 초월적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사적영역에 좌초되어 버렸다.¹¹⁾ 과거에는 전통, 권위가 가정을 통해서 전달되었지만 가정이 붕괴되면서 매체가 이를 대신하게 되었다. TV, 인터넷이 새로운 가치를 대신 전달해 주고 있다. 전통적 권위에 대한 반감과 더불어 초월적 영역이 사라지게 되면서 권력만이 남게 되었다.¹²⁾

이런 상황 속에서 종교사회학자인 피터 버거가 말하는 것처럼 개연성의 위기, Plausibility structure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공적영역에서 신앙을 논하는 것이 부조리한 것처럼 보이는 일반적 경향이 세상에 자리하게 되었다. 신앙의 영역은 사적인 영역에서나 이야기할 내용이라는 것이다. 공적영역으로 그런 담론을 가져오는 것은 부적절해지는 것이다. 공적영역에서는 초월적인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상식으로 통용되는 경향이 등장했다.

웰스의 진단을 정리하자면 산업혁명이 대량생산을 가져왔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계속적인 기술, 교통의 발달을 통해 실용주의라는 철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리고 효율성을 확보하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편재성, 이동성이 생겨나게 되었다. 전통적인 형태의 마을에 존재했던 영원성에 대한 개념, 정주성이 상실되고 자신의 취향과 필요, 선택이 삶의 자연스런 우선순위가 되었다. 이런 현상 속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도시적 상황에서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분리, 다원주의가 등장하게 되었다. 전통, 가치, 신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인격적 관계 안에서 주어진 일을 성취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다. 한 층 넓어진 세상, 넘치는 정보, 인간관계 속에서 더욱 속도를 내고 생산성 있는 개인이 되어야 한다는 불안감, 압박감이 조성되면서 삶의 넓이는 넓어졌지만 깊이는 지극히 얕아지게 되었다. 그런 방식이 일상을 지배하게 된 것이다. 효율을 중시하는 실용주의가 가져온 새로운 무대이다.

이렇게 세상에 자리 잡은 실용주의의 경향성이 어떤 형태로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되었는가? 존 맥아더는 사역 철학으로서의 실용주의가 교회성장운동을 통해 교회 안에서 추진력을 얻었다고 말한다.¹³⁾ 맥가브란이 창안한 교회성장운동은 교회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방법과 그렇지 못한 방법을 구분하는 선교전략을 만들기로 하고 생산적인 방식을 이용하는데 전념했다.¹⁴⁾

그가 교회 성장을 위해 던진 질문 네 가지는 '교회 성장의 원인은 무엇인가', '교회 성장을 막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요인이 기독교 운동을 이끄는가', '모방할 만한 교회 성장의 원칙들은 어떤 것들인가'였다.¹⁵⁾ 그는 교회가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모든 사례를 분

10) 신학실증, 132p.

11) Ibid., 138p.

12) Ibid., 144p.

13) 존 맥아더, 황성철 역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 (생명의 말씀사, 2010) 126p.

14) Ibid., 127p.

석해서 정리했다. 성장한 교회가 최종적인 분석의 대상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건강성, 성경적 교리, 목회 철학, 방식을 고찰하거나 고려할 요소가 되지 않았다. 양적 성장이 성공여부를 판가름하는 기준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다 보니 성공을 거둘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서만 사역과 선교를 시작하려는 경향이 생겨났고 이것이 교회 성장운동의 한 가지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¹⁵⁾

맥가브란의 교회성장운동은 열매를 맺기 위해 타겟을 정해 계층별 전도를 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타겟, 목표그룹을 정하게 되면 해당되는 사람들 개인적 취향, 필요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부각된다. 개인의 취향을 맞추기 위한 전략을 짜내고 이를 전술화해서 실행하기 위한 인력을 조직하기 위해 지역교회는 강한 리더십, 위계적 경영방식, 강화된 전문성, 마케팅 방식, 과학적 방법을 중요시하게 된다. 그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¹⁷⁾ 실용주의가 가져온 개인의 선택, 욕구충족과 같은 소비주의적 성향을 충족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 된 것이다.

박순용 목사에 의하면 이런 실용주의가 교회로 침투함으로 인해 교회가 오히려 성공주의를 도모하는 경향이 생겨남을 지적하고 있다.¹⁸⁾ 개인의 취향, 필요가 중요해짐에 따라 교회가 소비자에게 필요품을 공급하는 상점처럼 되었다.

교회가 실용주의에 입각한 마케팅 원리를 수용할 때 복음의 왜곡이 나타난다. 하나님, 예배, 말씀 선포와 교육, 회심에 대한 관념, 하나님의 복과 인정에 대한 왜곡이다. 마케팅 원리가 도입될 때 전도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개입이 아닌 효과적인 전도 방법, 수단에 달려 있다고 믿으며 그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다.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구 충족에 우선순위를 두게 된다. 설교는 청중 중심으로 변질되었다. 회심보다는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하나님의 인정과 복을 물질적인 것으로 제한하는 경향이 생겨났다.¹⁹⁾

마셜 데이비스는 소비주의, 즉 소비자 중심적 문화가 실용주의를 수용하는 교회 문화의 저변에 깔려 있음을 지적한다.²⁰⁾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선택권을 줌으로 나름의 선택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느낄 수 있게 해준다는 생각이 저변에 흐르고 있다.

전통적인 개념의 설교, 성경공부, 묵상, 기도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즉 중생, 회심, 칭의, 성화의 은혜, 하나님의 사역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교인이 원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둘 때 성도는 섬겨야 할, 말씀으로 목양해야 할 양떼가 아니라 소비자가 된다. 교회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판매자의 성격을 띠게 된다. 이런 과정 가운데서 인간에게 왜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고 죄인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메시지는 중심적 위치에서 밀려나게 된다. 따라서 실용주의적 교회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표방하지만 성도들의 욕구, 필요충족이 우선이기 때문에 신학적 정체성 또한 불분명해 지기 쉽다. 이에 대해서 마셜 데이비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신흥 대형 교회 교파와 옛 주류 개신교 교파의 유일한 차이는 대형교회는 분명

15) 크리스토퍼 스미스, 존 패티슨, 김윤희 역 *슬로처치* (새물결플러스, 2015) 71p.

16) *슬로처치*, 76p.

17) *Ibid.*, 72p.

18) *기독교 세상의 함정에 빠지다*, 153p.

19) *Ibid.*, 157-166p.

20) 마셜 데이비스, 이용중 역,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전부가 아니다* (부흥과 개혁사, 2009) 99p.

한 신학적 정체성이나 종교적 역사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의도적인 것이다. 대형교회는 의식적으로 비교리적이며 비역사적이다. 이것은 그들의 매력인 동시에 약점이다. 신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시대에 신학 없는 교회는 매력적이다. 역사적 기억 상실증에 걸린 문화에서 신앙적 유산은 비본질적이다. 뿌리 없는 사람들은 뿌리 없는 교회를 찾는다.²¹⁾

불분명한 신학적 정체성과 더불어 실용성 위에 세워진 교회는 교인들의 수평 이동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²²⁾ 정주성이 사라지는 것이다. 한 교회에 꾸준히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교회에 지어져 나가려면 시간이 그것도 장시간이 필요한데 머물지를 못하는 것이다.

이런 교회가 물질적 자원이 구비될 때 현대적 개념이 동원된 다용도 건물을 세우게 된다. 많은 교인들이 식사할 수 있는 카페테리아, 대화를 위한 커피숍, 설교테이프 및 기독교 서적을 구입할 수 있는 서점, 예식을 거행할 수 있는 시설, 최신의 음향, 방송 및 조명시설, 그리고 주차공간과 같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시설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맥도날드 매장처럼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이 그리 노출되지 않고 일정 수준의 음식을 제공받는데 익숙해진 현대인들에게 매력적인 편안함으로 다가올 수 있다. 편안함과 함께 제공되는 종교적 경험 때문에 이런 교회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셜 데이비스는 다용도적이며 고급화, 전문화된 설비들이 예배 장소의 세속화를 가져옴을 지적하고 있다.²³⁾ 성도들이 예배하는 장소는 구별하여 모인다는 의미에서 거룩함을 함의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다. 히브리인들의 성막과 그 이후의 성전에는 그 거룩함이 성소에 이려 지성소에 이르러 절정에 다다르게 되는 일련의 장소들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가 문자적으로나 상징적으로도 열린 공간이 되었다. 좌석, 에어컨, 조명, 음향 시스템, 빔 프로젝터와 같은 전문 극장과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²⁴⁾ 또한 대형화되고 전문화된 설비 안에서 예배는 개인화된 방식으로 이어지게 된다.²⁵⁾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자신이 드러나거나 노출되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가 판매자에게서 받는 관심처럼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예배가 이뤄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실용주의가 자리 잡을 때 파생되는 현상이다.

사실 이런 실용화, 효율성을 통해서 대상의 만족을 목표로 할 때 나타나는 역효과에 대해 일반 학자들도 비슷한 논조로 지적한다. 패스트푸드점과 같이 실용주의에 입각한 효율적 경영방식이 들어올 때 나타나는 성격을 사회학자인 조지 리처는 “맥도날드화(Mcdonalization)”로 표현한다.

맥도날드화는 크게 4가지 특징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그것은 효율성, 측정가능성, 예측가능성, 통제성이다.²⁶⁾ 효율성은 빠른 시간 안에 많은 고객의 주문을 받을 수 있게끔 음식을 만들어내고 주문을 받고, 계산이 가능하도록 조직화, 시스템화하는 것이다.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오랜 과정과는 달리 몇 단계 접근법으로 매장의

21) 목적이 이끄는 삶이 전부다, 105p.

22) Ibid., 103p.

23) Ibid., 151p.

24) Ibid., 162p.

25) Ibid., 163p.

26) 슬로처치, 79p.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방식이다. 측정가능성은 사업의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계량화된 수치라는 것이다. 질적인 부분은 고려할 이유는 없다. 제품이 고객 입맛에 맞게 표준화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영적성장은 계량화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다. 예측가능성은 프랜차이즈를 다시 찾게 하는 요인이다. 강동구청점이나, 상일동점등 어딜 가도 동일한 과정을 통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예측 가능성이다. 통제성은 브랜드화를 통해 비인간적인 과학기술에 의해 인간이 통제당하는 것이다.

맥도날드화된 형태가 가져다주는 것 중의 하나가 익숙함을 통해 얻게 되는 거짓 친근감인데 조지 리처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은 진실한 친교를 크게 제한하거나 아예 제거해버리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관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가식적인 친근감'만이 존재한다. 버거킹 종업원이 지켜야 할 규칙 제17조는 "언제나 미소를 지어라"이다. ... 사실 그들은 고객의 남은 하루가 어떻게 될지에 관심도 없고, 염려하지도 않는다. 공손하고 판에 박힌 방식대로 인사말을 건넬 뿐, 그들이 실제로 하고 싶은 말은 "꺼져", 즉 다음 손님을 받을 수 있도록 비켜달라는 것이다.²⁷⁾

맥도날드나 버거킹같은 패스트푸드점의 가장 큰 특징은 테이블 회전률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빨리 먹고 빨리 나가야만 이윤이 극대화될 수 있다. 줄 서서 차례가 되면 "Hi, ... what would you like, sir? ... what kind of drink? ... for a side dish? ... here or to go? ... thank you."라는 대화 후에 잠시 기다리면 주문한 음식을 받아서 먹고 나가면 된다. 모든 판매과정이 정형화되어 있고 매뉴얼에 따라 점원들은 고객의 주문에 응대하게 되어 있다. 맥도날드의 철학은 사실 고객들의 요구에 철저히 부응하는 것이다. 빠른 시간 안에 주문한 음식을 제공받고 어느 정도 먹을 만한(영양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의심스럽지만) 음식을 먹고 포만감을 가진 상태에서 빨리 내 일을 볼 수 있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기대를 만족시키는데서 나타나는 문화양식이다. 맥도날드는 아침을 먹고 성경을 묵상하기에 매우 적절한 장소이다. 아무도 간섭을 하지 않는 나만의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이 장소에서 판매자와 소비자와의 관계는 지극히 피상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영업승리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소비자의 심리에 부응하면서 판매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맥도날드나 버거킹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이야기 했던 웰스의 진단과 거의 일맥상통한다.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의 분리, 비인격적인 관계가 중요하다.

맥도날드화가 가져오는 문제 중 하나는 맥도날드의 판매방식과 사회가 닮아 가는데서 나타나는 비인간화이다.²⁸⁾ 고객은 일종의 조립라인에서 식사하면서 음식과 식사에 만족할 만한 여유도 없이 서둘러 먹어야만 하는 자동기계장치처럼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²⁹⁾

고객은 또한 각본으로 짜여진 상호작용을 비롯해서 상호작용을 획일화하려는 노력에 의해 비인간화된다. "인간의 상호작용이 있는 곳에는 획일성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 대량생산된 인간의 상호작용이란 관례화가 확연한 경우라면 고객

27) 조지 리처, 김종덕 역,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도서출판 시유시, 2003) 231p.

28) Ibid., 242p.

29) Ibid., 244p.

을 기계적인 수준으로 비인간화하는 것이고, 관례화가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으면 고객을 속이는 수준일 것이다.” 어쨌든 미리 만들어진 상호작용이 진정한 인간관계를 대신할 때 비인간화가 일어난다(조지 리처, 244-245).³⁰⁾

문제는 교회가 이런 맥도날드의 전략을 상당히 따라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정형화된 스케줄, 준비된 각본이 필요하다. 어떤 행사를 할 때 정교한 큐시트에 의해서 반응까지도 염두에 두며 진행하지 않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길러지기 위해 한 목회자, 한 리더가 섬길 수 있는 사람들의 수는 한계가 있고 성장하기 위한 시간적, 공간적 토양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고 공간이 오히려 축소되어야 한다. 한 사람의 성도가 교회 행사, 프로그램외의 시간과 장소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지 아는 가운데 목양하는 영적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맥도날드식의 접근으로는 이뤄질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교회에서 지향하는 신학도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끼고 전달하기 쉽게끔 가공과 포장을 하게 된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과 이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계획과 이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역들이 축소, 왜곡, 포장될 수 밖에 없을 것이고 우리의 정서를 만져주는 다른 이야기들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이를 실용주의 교회에 나타나는 신학적 환원주의(theological reductionism)라고 명명하고 싶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제자도에 이를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실용주의로 인한 또 다른 역기능은 신학을 사람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 정제하여 전달하는 신속성, 편리성으로 인한 인격적이며 아날로그적인 메시지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리처는 패스트푸드 산업으로 인해 ‘동네 밥집’이 사라진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교회의 상황에도 견줄만하다.³¹⁾ 패스트푸드점의 비인간적 측면은 사람들 간의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종업원과 고객의 접촉은 아주 잠깐만 일어난다. 종업원이나 고객은 서로 바쁘다는 것을 깊이 공감하기 때문에 고객은 식사하고 종업원은 다음 손님의 주문을 받는 쪽으로 넘어간다.

사실, 패스트푸드점이 성공을 거둔 이유 중 하나는 이 형태가 현대사회의 빠른 속도와 사무적인 면모에 잘 부합되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현대인은 불필요한 인간관계 없이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를 처리하기를 원한다. 패스트푸드점은 바로 이들이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공해주는 것이다.³²⁾

새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중에 인격적 관계로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거부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대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익명적인 관계에 익숙해져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코이노니아는 제한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다. 말씀으로 조명되며 자신이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 익명성 속에서는 진행되는 예배, 제자훈련, 이런 저런 프로그램들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감이 있을지 의심스럽다. 그리고 축소, 포장된 내용에 길들여 질 때 신학적인 환원주의에 빠져 있지 않은 동네밥집을 더욱 더 외면하게 될 것이다. 동네밥집처럼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을 인격적인 방식으로 나누는 것은 바쁜 현대인들에게는 부담스런 투자이며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여길 것이다. 때문에 동네밥집

30) 맥도날드화, 244-245p.

31) Ibid., 247p.

32) Ibid.

처럼 건강한 신학에 기초한, 환원주의에 빠지지 않은,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제자화가 가능한 형태의 교회는 날이 갈수록 줄어들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의 화해를 가져오는 복음의 사명이 펼쳐지기 위해 교회는 정주성, 영원성에 대한 감각을 회복하는 가운데 성도의 온전함을 위해 인내로 섬겨야 한다. 듀크 대학의 크리스 라이스도 교회의 정주성에 대한 언급을 한다. 과잉이동성과 개인주의적인 사회에서 교회가 환대와 너그러움을 회복하는 것을 정주성의 회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인내는 타인의 고통에 참여하는 가운데 분열로 인한 고통 때문에 탄식하는 것으로서 이 세상의 깊은 아픔에 귀 기울이며 위로 받기를 거절하는 라마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말하고 있다.³³⁾ 그는 교회가 고통의 현장, 분열되어 있는 세상에 깊이 참여하는 가운데 화해의 사역을 행할 것을 촉구한다. 탄식, 애통은 이 세상의 속도에 편승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³⁴⁾

탄식하고 있는 지역의 고통에 민감하지 못하는 거리감이 속도(효율성)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교회가 깨닫는 가운데 교회는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정주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나누는 것이다.³⁵⁾

그 한 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로 돌아가시는데 우회하지 않고 사마리아의 여인을 굳이 정오의 그 뜨거운 땡볕 가운데 찾아가셨던 것을 볼 수 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러신 것이다.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부탁하시면서 라포르(Rapport)를 형성하시며 대화를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필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셨다.

단절의 현장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은 선포되는 복음을 듣는 자들이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알게 될 정도로 그 장소에 충분히 오래 머문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4:18-19를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며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고 선포하셨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위해 지상에서 오랜 시간을 죄인들 가운데 머무시면서 기름부음 받은 자의 사역을 감당하셨다. 이는 실용주의와는 거리가 멀며 정주성을 확보하면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한편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은 진공상태가 아닌 세상의 정신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에서 선포되는 복음이다. 사람들의 욕망, 이상, 권력, 정체성, 충성이 서로 싸우는 곳에서의 사역이다. 이런 곳에서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는 신학적인 반성을 하면서 기독교적 뿌리에 닿아 있는 것이 중요하다.³⁶⁾

마이클 호튼은 교회를 활동을 위한 대안적 공동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음을 지적한다. 하나님을 위해 그들이 일을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설교는 신자들 개개인을 위한 행동지침, 헌신에 대한 권면이며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현상을 진단한다.³⁷⁾ 대안적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자, 성도

33) 에마뉘엘 카통골레, 크리스 라이스, 안종희 역 *화해의 제자도* (IVP, 2013) 98p.

34) Ibid., 100p.

35) Ibid., 102-146p.

36) Ibid., 168p.

37) 마이클 호튼, 김성용 역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부흥과 개혁사, 2009) 246p.

의 의무이자 대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현실을 지적한 것이다.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하나의 필요사항으로 부각된 것이다.

윌로우 크릭 교회가 자체 교회 보고서를 통해 이러한 교회의 문제점을 나름 정리했다. 보고서에서는 활동적인 참가자들이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영적으로 진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호튼은 보고서의 결론이 교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면서 실천과 섬김에 참여하는 단계에 이르는 것이 영적성숙으로 귀결되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결론의 강조는 우리를 하나님이나 아니라 자신의 실천과 섬김이다. 성숙도를 실천과 참여의 측면에서 측정하고 있다.³⁸⁾



(김종희, 빌 하이벨스 목사 “우리가 잘못했다”, 뉴스앤조이
<http://www.newsjo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406>)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다른 사람들, 소그룹과 연결되고 영적실천, 봉사와 멘토링을 강조한다. 교회의 표지가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가 된 것이다. 이런 사명지향적인 행동주의는 믿음의 고백을 강화시키는데는 실패했으며 신자들을 영적 불안정에 놓이게 했다.³⁹⁾

호튼은 기독교의 핵심메시지는 여기에서 최선의 삶을 살 것인가, 깊이 참여할 것인가, 더 개선된 내가 될 것인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둔 하나님의 승리를 선언하는 것이다.⁴⁰⁾ 전통적인 교회의 표지인 말씀과 성례, 그리고 치리를 신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다. 활동, 다른 여러 사역들을 교회의 표지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건강하게 자리 잡은 교회의 표지가 사역, 활동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교회는 사회 속에서 선한 영향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인가? 교회는 생명의 복음, 진리의 말씀, 삼위 하나님의 선포하여 성도들이 세상이라는 무대에서 거룩하게 살려는 의지를 북돋는 것이다. 한 예로 노예무역폐지는 교회가 아닌 성도가 세상에서 한 일이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공직을 맡은 자로서 노예무역의 폐지를 위해 평생을 바친 사람이었다. 그가 살았던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율법과 복음을 선포”했고 교회의 성도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세속적인 직업 안에서 수행했다.⁴¹⁾

38)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249p.
 39) *Ibid.*, 254p.
 40)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252p.
 41) *Ibid.*, 275p.

여러 학자들이 강조하는 것이 메시지와 전달 방법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효율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적인 방법을 통해 복음이 전달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는 방법과 매체에서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여러 학자, 사역자들은 말하고 있다. 선포, 설교, 세례, 치리, 가르침은 정주하는 가운데 영원에 대한 인식 가운데서 이뤄져야 하며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는 효율적 방식에 보조를 맞추면 안 되는 것이다.

교회는 같은 취미, 같은 비전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개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져 가면서 기존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대안적 공동체를 실험하는 모임들이 많이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곳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어지거기 위해 모인다. 자발적 교제를 위해, 이런 저런 비전을 위해 참여하는 모임과는 다르다. 호튼은 교회는 도덕적 가치와 교회가 내세운 명분을 추구하는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자들로서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가는 존재가 교회임을 천명하고 있다.⁴²⁾

암8:11에서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말하는데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은 사람의 만족에 초점을 맞춘 실용주의적 패러다임이 자리 잡을 때 나타나는 신학적 타협, 환원주의로 인한 결과일 것이다. 소비자로서 교회에 앉아 있는 성도에게 자신을 맞추는 교회는 결국 이런 영적 기근을 가져 온다.

싱클레어 퍼거슨의 주장처럼 하나님의 구원계획은 분명하며 일정한 양식이 있다. 그것은 인간 모두에게 동일한 보편적인 문제와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죄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야 할 궁극적이며 동일한 필요를 가지므로 근본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⁴³⁾ 그래서 복음은 분명하고 원칙적이며 성령의 역사가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다. 효율적으로 사람들의 필요에 맞추어 소비주의의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믿음과 영적 성숙은 사신(ambassador)을 통해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 교회의 사역이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지체인 몸과의 연결을 잃는 것이다. 최근에 가나안교회 현상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다. 교회 밖의 가나안 성도, 교회 안의 가나안 성도들을 논하고 있다. 이들을 어떻게 머리와 몸에 건강하게 연결시킬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사실 이들 가운데 교회의 실용주의적, 타협적, 신학적 환원에 질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 시간과 속도를 늦추고 정주하는 가운데 복음을 풍성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한다.

교회는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이라는 반석위에 예수께서 세우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서술-명령의 패턴으로 이어져 나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항상 앞서는 것이다.⁴⁴⁾ 교회는 복음으로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 안에서 구원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자라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웃사랑을 위해 세상에 파송되는 것이 교회이다. 그래서 복음이 삶보다 논리적으로 우위를 가진다.

마이클 폴라니(Michael Polanyi)는 인격적 지식(personal knowledge)이라는 저서에서 과학을 배우는 것은 도제방식, 인격적 관계 안에서 전수된다는 것을 말했다. 그것은 충분

42) Ibid., 288p.

43) 싱클레어 퍼거슨, 장호준 역, *성도의 삶* (복있는 사람, 2010) 41p.

44)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296-297p.

한 시간과 관계가 개입된다는 것이다. 사람의 성숙과 질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시대에 엡 4:11-13 말씀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 평생의 과정이다.

리차드 러블라스(Richard Lovelace)에 의하면 부흥은 인간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 이 주시는 선물인데 역사적으로 고찰했을 때 부흥의 전제조건들이 있음을 나누고 있다.⁴⁵⁾ 부흥의 본질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와 사랑)을 깨닫는 것과 죄에 대한 각성이다. 그리고 복음을 통해 성도가 믿음으로 칭의의 은혜를 입고 거룩케 하시는 성화의 역사가 수반되는 것이 부흥의 1차적인 요소이다. 교회에서 복음이 성도에게 선포될 때 칭의와 성화의 은혜가 일어나고 나서야 사명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선교, 기도, 공동체, 문화적 속박에서 탈피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신학적 통합이 칭의와 성화의 역사가 시작된 후에 일어나는 것이다. 건전한 성경의 말씀과 교리를 가르치지 않으면 영적 수면상태에 결국에는 빠진다. 성도들이 살아나는 출발점은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다.

러블라스는 복음주의 교회가 무디 이후로 은혜를 많이 설교했지만 성화와 같은 하나님의 다른 은혜와 사역에 대해서는 균형감을 가지고 증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신자들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안정해 지면서 문화적으로도 자유하지 못하고 속박되게 되었다. 그들을 자녀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영성이나 성취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그들에게 전가된 것이기 때문임을 실제적으로 이해하게 해야 하며 칭의와 성화의 은혜 또한 혼동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노력이 동시에 수반되는 것을 부흥의 전제조건과 연결시키고 있다.⁴⁶⁾

참된 성화에 이르게 하는 사역은 도덕주의를 회피하게 하는 것이다. 육신의 깊은 죄의 문제를 깨닫게 하고, 육신에 대한 승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죽음, 그리고 부활로 그 분과 연합하고 죄를 이기는 권능을 위해서 성령께 의지하는 것이 동반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⁴⁷⁾ 존 오웬과 존 카일 주교도 은혜의 시작은 우리에게 놓여진 죄의 현실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전(정)통적인 성경의 교훈을 살아 있는 형태로 전할 때 일어나는 역사이다. Live orthodoxy이다. 성경적 교리가 결여된 선한 행실은 도덕주의로 이어지기 때문에 진리를 반드시 선포해야 한다. 말씀은 침묵하면서 세상에서 무례하지 않게 선한 행실로 자리 잡는 것은 세상이 겸손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는 교리적 혼동, 영적 무능력만을 가져오기 쉽다.⁴⁸⁾ 이런 경우 사회적으로 정의와 의로움에 대한 개념을 각성시킬 수 있지만 결국 사람은 목자의 음성과 말씀을 듣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자녀, 제자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지적하고 있다.

마크 놀의 What happened to Canada?라는 소논문을 읽어보면 캐나다의 교회가 급격하게 죽어가는 과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⁴⁹⁾ 1930-40년대에 미국보다 강했던 캐나다의 기독교와 사회 전반에 자리 잡던 기독교의 선한 영향력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를 진단한다. 세속주의가 2차 대전 이후로 자리 잡고 캐나다에 받아들인 다양한 국가, 문화적 배경의

45) Richard F. Lovelace, *Dynamics of Spiritual Life: an Evangelical Theology of Renewal* (IVP, 1979) 61-80p.

46) *Dynamics of Spirituality*, 211p.

47) *Ibid.*, 214p.

48) *Ibid.*, 283p.

49) Mark A. Noll, *What Happened to Christian Canada* (Regent College Publishing, 2007) 7-57p.

이민자들을 통합하기 위해서 캐나다 정부는 통치이념으로 다원주의를 표방하게 된다. 절대성을 부인하고, 가치, 신념을 사적영역으로 몰아내는 사회적 분위기 가운데서 교회가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교육시키고 전수하는 데 실패하게 되면서 교회의 반응, 반성은 소통과 사회와의 관련성, 사회복지로 방향을 상당히 전환되게 된다. 무례하지 않으면서 문화 속에서 대화하는 기독교를 표방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 있어서 교회는 세상의 기관과 비교할 때 우위를 점할 수 없었던 것이 드러났다. 문제는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로부터 우회하는 가운데 소통, 관련성, 사회적 이슈로 눈을 돌릴 때 결국 세상은 메시지 없는 교회를 외면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말하고 있다.

오직 성경적인 교리, 말씀의 선포가 교회의 표지가 되는 것이다. 살아있는 교리는 말씀을 조명하고 깨닫고 적용시키는 성령의 사역을 전제로 한다. 말씀으로 부흥된 교회 없이 효과적인 사회적 증거도 없다. 호튼과 비슷한 논조로 러블라스는 윌리엄 월버포스의 예를 드는데 그가 살던 시대의 평신도들은 하루에 3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에 주목한다. 특히, 그들은 기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 했다. 또한 수입의 상당부분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생수로부터 물을 마시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결코 자비를 베풀 수 없다는 이야기들을 했다. 인생의 모든 목적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들의 유익이 되도록 기도했다는 그들의 증언을 기억하라고 한다.

교회가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하는 것은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이해하고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마음의 변화를 받아 자신을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된다. 호6:6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는 결국 칭의와 성화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가 질문하시는 말씀이다. 값 없이 받아들여진 은혜(칭의)와 삶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순종의 제사(성화)가 나란히 놓여지기를 원하시는 것이다.⁵⁰⁾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처한 죄의 깊이, 그리고 칭의와 성화의 은혜를 담은 복음 사역의 깊이에 관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사역의 넓이를 보살피실 것이다.⁵¹⁾ 성경은 실용주의에서 말하는 것처럼 수적 성장에 큰 비중을 두지 않는다. 씨 뿌리는 비유나 양 한 마리의 비유를 보면 수적 성장과는 별 관련이 없다. 오히려 성도의 신실함이 더 강조된다. 그리스도인이 전하는 증언의 신실성을 더 강조한다.⁵²⁾ 따라서 교회는 복음의 가르침을 축소시키지 않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주권에 교회의 기초를 두어야 한다. 당장의 성도들의 편안함과 그들의 성향을 만족시키는데 교회의 목표와 가치를 두면 이것들이 사라질 때 성도들은 교회를 즉시 떠나게 된다.

성경에서 바울은 당시의 소피스트들처럼 레토릭에 의존하지 않았다. 고린도후서에서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 했던 비판은 그의 말이 어눌하고 소위 큰 사도에(super apostle) 능력이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교의와 교리적인 내용을 죽은 지식, 추상적인 것, 메마른 스테이트먼트로 보고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은 축소하면서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기 위해 많은 목회자들이 고심한다.

마르바 던의 책을 보면 이런 현실 속에서 설교의 동향이 변화된 것을 연구한 웰스

50) Dynamics of Spirituality, 433p.

51) 복음을 부끄러워 하는 교회, 126p.

52) 레슬리 뉴비긴, 홍병룡 역, *오픈 시크릿* (복있는 사람, 2012) 220p.

의 내용을 인용하고 있다. 설교의 내용이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부분에서 인간중심적인 것으로 바뀐 것을 말한다. 그는 200개의 설교를 샘플로 취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중 24.5%정도가 성경 구절을 위에 설교내용이나 구조가 잡혀 있었고 단지 19.5%만이 하나님의 본질, 성품, 뜻과 관련된 설교였다. 80%는 인간중심적인 내용이었다.⁵³⁾

연구의 결론은 사람의 반응을 교회와 설교자가 염두에 두게 되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내용이 변질되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환원주의에 빠지고, 심리적인 만짐이 주가 되는 것이다. 실용주의와 손잡을 때 교회가 빠지는 위험성이 이런 것이다.

이는 자유주의보다 훨씬 더 미묘한 위험을 교회에 심어 놓을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들을 한다. 청중의 필요에서 시작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본래부터 현실에 가장 적합한 책이라는 것이다.⁵⁴⁾

환원되지 않은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효율에 사로잡힌 분별되지 않은 인간의 방법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변질시키게 해서는 안 된다. 청중에게 전달하는 핵심은 메시지여야지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하고 씨를 뿌리는 사역으로 돌아가야 하며 그 일에 충실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이 열매를 맺을 것을 믿고 교회는 이 일에 매진해야 한다.⁵⁵⁾

요즘 이런 부분들을 정면으로 뒤집는 일들이 사역자들 가운데서 많이 일어난다. 앉아서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사역에 적실하지 않으며 세상과 유리된 공허한 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오히려 일상의 일들에 뛰어들면서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이 훨씬 선하다는 것이다. 선한 사역, 선한 행실은 말씀을 통한 은혜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인데 자신을 열매로 입증해야만 하는 사회 속에서 이런 정적인 작업들은 무가치하게 보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시는 목적은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복음이 전해지는데 있다. 복음이 그렇게 확장되어 나간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유와 목적하신 뜻 안에서 그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성경은 말한다. 인간을 쓰시지만 인간이 주인이 되어 성취해야 할 프로젝트가 아닌 것이다.⁵⁶⁾

보람은 자유시장 경제, 세계화와 같은 경제적 실용주의가 새로운 제국주의 이념으로 자리 잡은 기독교에 적대적인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내용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선포되어야 함을 강조한다.⁵⁷⁾ 그는 성경은 증거라는 방식으로 메시지가 전달된다는데 주목한다. 증거(witness)는 포스트모던 시대에 굉장히 부합하는 강압적이지 않다는 특징을 갖는다. 증거는 권력, 힘을 통하지 않고 설득력 있는 근거를 대면서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다. 변호사들처럼 수사적이지 않으며 합당한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자신이 삶과 죽음을 모두 아우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어야 한다.⁵⁸⁾

53) Marva J. Dawn, *Reaching Out without Dumbing Down: a Theology of Worship for the Turn-of-the-Century Culture* (Eerdmans, 1995) 227p.

54) *복음을 부끄러워 하는 교회*, 138p.

55) *복음을 부끄러워 하는 교회*, 144p.

56) Richard Bauckham, *Bible and Mission: Christian Witness in a Postmodern World* (Baker Academics, 2003) 91p.

57) *Ibid.*, 97-99p.

58) *Ibid.*, 99p.

이러한 증거가 되기 위해서는 러블라스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성도에게 있어서 칭의와 성화의 은혜가 다시 강조될 수 밖에 없다. 성도는 이에 더하여 성령의 권능이 부여되어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다. 마태복음 28:19처럼 성경을 통해서 알려진 하나님의 본질과 사역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다. 성경의 이야기를 말하는 것보다 교회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성경은 당시의 시대를 관통하는 이데올로기는 권력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는 능력은 세상권력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다르다. 계시록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주목할 것을 이야기한다. 세상의 우상, 권력에 대한 카운터 내러티브로서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국의 절대성, 신성을 부인하고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 보좌에 앉아 있는 그 역설, 그리스도의 절대성, 주되심을 선포하라고 한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며 이 선포, 증거가 세상과의 연결점, 고리, 관계, 연관성을 맺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얽혀 있는 근본적인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한다.

결론

참된 선교적 교회로 존재하려면 교회가 실용주의에 오염된 시간과 장소를 회복, 구속할 필요가 있다. 특별한 프로그램으로 교회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의도를 가지고 정주성이 회복된 가운데 한 걸음씩 주님을 따라 가는 것이다. 시공간을 초월해 버린 실용주의적 중심부가 아닌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주변부에 자리하면서 칭의와 성화의 복음을 선포하고 나누고 가르치는 가운데 진리의 복음, 구원의 말씀이 성도 안에 내재화 되면서 그것이 바깥으로 흘러나가는 시간과 공간이 되는 것이 교회의 존재이다.

교회, 성도가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가르치고 귀 기울이는 가운데 성령께서 밭의 돌들을 제거하고 심겨진 씨가 자라게 하시는 역사를 기다리면서 동참해야 한다. 교회에서 영적 성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것이며 이는 복음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영적인 자라남이다.⁵⁹⁾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가 아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께 구하는 대상이지(seek) 우리가 세우는 것이(build) 아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며 주님이 돌보시는 대상이다. 한국 교회에 역기능적 측면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의도하신 역사는 아닐 것이다. 실용주의, 야망, 욕심과 같은 씨앗으로 심은 것을 지금 거두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뜻으로 돌아가 순종하여 오직 성경의 진리를 훼손함이 없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성도들에게 전할 때 이후의 결과는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다.

59) 마크 데버, 이종용 역,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 (부흥과 개혁사 2004) 296p.